

연안여객선 · 터미널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

오는10월말까지,선내 청결상태, 안전장비 비치여부 등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해상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오는10월말까지 연안여객선과 터미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객만족도 평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실시된 이후 격년 실시 계획에 따라 2년만에 실시되며, 전문용역사를 통해 첫째, 정기

운항 여객선(약 134척)의 선내 청결 상태, 안전장비 비치여부 등에 선박 모니터링 둘째, 여객선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상으로 여객선 승무원의 친절도 및 선내시설 이용의 편의성 등에 대한 만족도조사 셋째, 부산·인천·목포 등 14개 연안여객터미널 이용자를 대상으로 터미널 시설물 관리상태 등에 대한 만족도조사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특히,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이용객 만족도조사는 올해 처음 실시되며, 여객선사에서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는 여객선 승승실적 및 경영수지조사표 등의 제출여부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실적 관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에 앞서 지난 달에 실시한 평가용역 착수보고회와 목포·통영·인천지역에서 개최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여객선사 등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서비

스 제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향후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선사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게 되는바, 해운법에 따라 우수선사는 포상 및 우대 조치를 하고, 부진한 선사에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어서, 여객선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연안여객선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에 오르세가 있다면 목포역엔 GLORY 미술관이”

남도여행 인기 명소로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인기몰이중

남도여행의 중심, 목포역(역장 박석민)에 가면 예술향기 가득한 미술관을 만날 수 있다. 맞이방 2층에 있는 30평 규모의 'GLORY 미술관'이다.

지난 4월 23일 개관 이래 총 5회의 전시회가 열리는 동안 매주 평균 1백5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목을 기록하는 등 남도문화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 전시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큐레이터는 따로 없지만 작가가 직접 나와서 상세한 작품설명을 하기도 해 목포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인기 명소가 되고 있다.

현재 5회째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윤현식 화백의 '생명의 어울림



목포역 글로리 미술관

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기간은 이달 말까지. GLORY 미술관의 첫 전시회는 황토흔 댄 남도풍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송하조 병연' 화백의 '다도해 진경전', 두

번째는 춘원 최한용의 한국화전, 세 번째는 남도의 중견 수채화가 김희준 'Water Color, 몽환의 풍경'전, 네 번째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강남규 개인전이 열렸다. 목

포역의 하루 유동인구는 1일 4천명으로, GLORY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 경우 전시 효과도 톡톡하다. 외지의 관광객들에게는 쉽게 남도의 문화예술을 만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체험장이 되고, 또 갤러리에서 저렴하게 작품을 구입할 수도 있어 지역 예술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석민 목포역장은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처럼 GLORY 미술관을 목포에 오면 오래 들르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기자여행도 하고 미술품도 구매하는 KTX 열차상품을 운영한다면 ‘강진청자토요경매’나 ‘진도토요미술경매’처럼 철도고객은 물론 미술애호가나 수집상들이 찾아오는 인기 명소로 부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많은 작가들에게 갤러리를 개방해 수준 높은 전시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일로 기자단' 임명장 수여

8월 21일까지 생생한 '내일로 여행' 현장 취재



코레일(사장 허준영·사진 왼쪽)은 지난 20일 본사에서 7명의 내일

로(RAIL로) 기자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내일로 기자는 이날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내일로 티켓 '을 이용한 내일로 여행' 현장을 취재해 코레일을

로그, 트위터 등에 등록한다. 이번 기자단 모집에는 총 59명이 지원해 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원자의 대부분은 대학생으로 각종 대회참가, 수상경력, UCC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 있는 지원자가 많았다.

이번 심사는 취재 계획서를 포함한 서류심사로 선발했으며, 심사 시 대회참가, 수상경력, 작품 활동 등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하여 3개팀 총 9명을 선발했다.

내일로 기자단: 이승환(남, 19), 이창훈(남, 18), 박홍철(남, 25), 조수아(여, 24), 변국석(남, 25), 예진협(남, 21), 김소리(여, 20), 최신춘(여, 25), 김민주(여, 19)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상반기 장학생 1,144명 선발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이사장 김옥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난 20일 장학금 8억 8천 6백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2,584명(고등학교생 601명, 대학생 1,983명)이 신청했으며, 그 중 총 1,144명(고등학교생 516명, 대학생 628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장학생은 성적전형, 기타전형(다자녀·한부모·저소득·근로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했으며, 고등학교생은 50만원, 대학생에게는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은 설립 이래 총 35억 3천 6백만원의 장학금을 4,444명(고등학교생 1,816명, 대학생 2,628명)에게 지급하게 됐다.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정부기관 뭉쳤다

행안부, 경찰청·소방방재청 등과 협약 체결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별로 분산해 수행하던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통합한다. 국민소득증대와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매년 해양레저 수요, 해수욕장 피서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동안 해수욕장에서 수상 인명구조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

동인 기관별로 수행하고 있던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해수욕장 안전관리 융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과 MOU(사진)를 체결했다.

찰청이, 해수욕장 치안관리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중복수행함으로써 기관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그



르노삼성자동차, <2011 부산 공장 부모 초청행사> 개최

장 부모 초청 행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1일 초청 행사에 부모님이 방문한 제조본부 조립팀 송명길(27세) 사원은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구성·구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모님께 제공되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정성 어린 초청 행사를 다녀오신 후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최고'라며 자랑스러워 하는 부모님을 보니 더욱 뿌듯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대표 이사 장마리 위르피제) 임직원들의 애사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임직원 부모님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향상하기 위한 <2011 부산 공장 부모 초청 행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1일 초청 행사에 부모님이 방문한 제조본부 조립팀 송명길(27세) 사원은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구성·구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모님께 제공되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정성 어린 초청 행사를 다녀오신 후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최고'라며 자랑스러워 하는 부모님을 보니 더욱 뿌듯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건설교통신문 | 1988년 10월 17일 창간
1988년 4월 20일 등록번호 다 - 520호(週刊)

회장·발행인 / 박영규 편집인 / 진영섭 주필 / 이명우 편집국장 / 양노홍 인쇄인 / 김준배

140 - 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3 - 2 대표전화 (02) - 792 - 9252 FAX (02) - 796 - 8296

편집국 (02)792 - 9252 교통팀 (02)792 - 9254 건설팀 (02)792 - 9253
관광팀 (02)792 - 9252 광고접수 (02)792 - 9255 구독신청 (02)792 - 9252

THE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NEWS

www.knia.or.kr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에어백

대한민국에 전화하세요
1544-0049

■ 사고의 아픔이 생활의 꿈까지 앓아가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 국가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국가보장 프로젝트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 등의 피해로 보상받을 곳이 전혀 없을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국가가 보상해 드립니다

누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구 분	보상금액
사 망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원
부 상	최고 2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

